

[위피백과]

수능국어_이십세기

: 1994~2000 기출 선별

〈3주차 해설편〉

위피_심프 ver.

[1~4]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조각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觸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키워드 먼저 뽑읍시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 숭배심 정도가 눈에 보이네요. 그럼 키워드와 관련된 화제는? '고대 조각품을 감상하는 자세 - 숭배심(신성함, 거룩함), 초월적인 느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동서양을 나누었으니, 동양과 서양의 고대 조각품이 차이가 있나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숭배심, 초월적인 느낌은 공통될 것이구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봅시다.

고대의 조각품 : 종교적 이상, 숭배심, 초월적 느낌
 감상할 때 미적 정서 촉발 O, But, 후대(<->고대)

주목해야할 점 : 키워드와 화제 찾기(늘 그랬듯이)

19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미로의 비너스' 상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발견 당시 이것은 굴 안의 북쪽 벽 앞에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 주위에 토기(土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리스 시대의 인체조각상은 동양의 불상처럼 신전에 모셔졌으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조각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의 조각품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예시로 조져줍니다. 서양의 고대 조각품 사례 하나 들어주고, 숭배적 대상이었다 설명해주고, 동양의 불상과 비교해두면서 공통점 잡고! 막판에 현대와 감상 방법이 다르다는 점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화제 잡고, 1문단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준다는 점을 파악하셨다면 굉장히 잘 읽으신겁니다.. 이미 구겨황..

미로의 비너스 상(서양, 인체조각상) = 종교적 숭배의 대상(= 동양의 불상) : 미적 정서 X(숭배, 초월적 느낌 등)

주목해야할 점 : 1문단과의 연계(구조+내용)

이 조각상에 나타난 그들의 인체 탐구 정신은 지극히 사실적(事實的)이면서도 이상화(理想化)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서구 미술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

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미술가들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게 한 불후(不朽)의 사상인 것이다.

1문단에서 언급한 지점들,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던 점들 짝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정말정말 깔끔하게 나와요. 20세기에도 이런 좋은 지문들이 있답니다. 위파백과를 푸는 당신만 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튼 잘 찾았으니 화제 생각해두면서 동양 VS 서양의 차이점까지 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서양 : 인체탐구, 주된 대상 = 인간(<->동양 : 자연 표현)
 - 황금비례 -> 인체탐구 = 신의 창조 비밀 O 간주
 ∴ 예술 = 인간 모방

주목해야할 점 : 앞 문단과의 연결고리 + 1문단에서 파악한 화제와의 연결

한편, 동양의 화가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산·물·나무·동물·곤충·꽃 등과 같은 자연의 물상을 단골 소재로 삼았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생(寫生)이라고 일컬어 왔다. 사생은 산수나 화조(花鳥)처럼 자연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앞에서 동양 VS 서양 구도 각 살짝 잡아주고 서양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바로 동양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화제 한 번 다시 봅시다.

'고대 조각품을 감상하는 자세 - 숭배심, 초월적인 느낌'

서양은 인체를 묘사하여 신의 창조 비밀을, 동양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합니다. 둘 다 감상할 때 신성한 느낌을 갖고 있겠네요. 신의 창조 비밀이든, 인간의 본성이든 나름 숭배(?)적이고 신성, 거룩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미술이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의 미술은 얼핏 보아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정신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동양 미술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언급해주고 동양과 서양의 대립 구도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아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르지만, 결국 인간과 자연의 관계같은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하네요. 내용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깔끔한 것은 물론이고 화제를 뽑는 것부터 문제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푸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문 자체가 정말 깔끔하고 심플하다는 점에서 분석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 맞았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틀리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 지문을 꼼꼼히 다시 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1. ④

정확합니다. 인체 탐구를 통해서 신의 창조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죠.

①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을 통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생'을 설명하면서 자연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② 고대 조각품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감상할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나온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후대에 와서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③ 다릅니다! 서구는 인간 동양은 자연을 표현했어요.

⑤ 인체를 소재로 삼은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이 숨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욕망? 그런 얘기는 1도 없죠.

2. ⑤

막줄에서 다 드러났죠?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 가볍게 고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만 실수 없이 잘 읽으셨다면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②

㉠은 결국 고대의 조각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태도를 묻는 것이죠. 즉, 중요한 건 상징 대상이 숭배심을 전제한 것이고 감상할 때는 초월적인 느낌(거룩함, 신성함 등)을 받았느냐입니다.

종교적 숭배 대상인 본존불을 보고 '멋있다', '화려하다' 따위의 미적 정서가 아니고 '자비로움'에 숙연해집니다. 초월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① 할아버지는 숭배 대상이 아니죠? 조상신도 아니고..

③, ④ 표현 대상이 숭배심을 전제하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느낌을 받지도 않습니다.

⑤ 비너스상이니까 숭배심을 전제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미적 정서에 기반하여 감상합니다. 초월적인 느낌이 아니네요.

4. ⑤

자연과 인간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감상자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골라야겠습니다. 단순히 '와 멋지다! 예쁘다' 이런 감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5번 선지는 자연에 결눈 들이고, 그(자연)의 기쁨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네요. 감상을 넘어 자연에 동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②, ③, ④ 자연을 그냥 감상하고 있습니다. 2, 3번은 그냥 와! 자연 예쁘다! 자연 쓰스ㅏㅓㅓ! 이런 감상에 그치고, 4번은 그냥 자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8]

5. ②

길동 모가 첩인지 본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요.

① 끝부분에서 엄마와 이번 길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그것을 허락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③ 임종 직전에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라면서 길동을 못 봐서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④ 길동이 오고 아버지의 임종 직전에 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즉, 죽고 난 이후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⑤ '길동이 거짓 탄식 왈' ... 구라치고 있습니다.

6. ③

다른 곳들은 전부 좋은 터들인데 반해 ㉠은 험악한 곳입니다. 안 좋은 장소라는 것이죠.

7. ③

길동이 절대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을 보면, 길동과 어머니가 서로 울면서 재회하죠? 길동이 어머니를 버렸으면 울지 않았을 겁니다. 고로 확인 가능하네요.

① 그냥 길동이가 울고 있습니다..

② 마찬가지로 그냥 울고 있어요.

④ 형이랑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관계가 없네요.

⑤ 어머니와 재회하고 버리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한 이후에 그냥 못자리 알아보는 대목이죠? 당연히 틀린 선지입니다.

8. ③

부모와의 관계를 노래하는 선지를 찾아야겠습니다. 3번에 '아버이 그린 줄은 만코 만코 하고 하고'를 보면,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죠.

① 기다리지 말래요.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대목으로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②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네요.

④ 고은 '님'이네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⑤ 자연 밖에 안 나오네요. 걸러줍시다.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과 과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철학은 병신이야!'하다가 뒤에서는 사실은 아니다~ 하고 뒤집고 있죠. 키워드는 그럼 철학과 과학이 될 것이고 화제는 둘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는 생략할게요.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시나 철학과 과학의 대립구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문장이 많아요. 그럴 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과학 : 정확한 공식화 가능, 가설 -> 기술, 진리 세계 점령지대
 철학 : 미지,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설, 진리 탐구 최전선, 불확실
 우리 삶 = 지식 + 기술의 안전지대(탐구 X)

주목해야할 점 : 대비되는 두 개념의 비교지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앞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조져놓은 걸 풀어서 설명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철학 VS 과학 중에 과학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과학 : 분석적 기술(<->) 철학 : 종합적 해석)
 - 전체 -> 부분, 모호 -> 확실

- 가치, 이상적 가능성, 궁극적 의미 X
 - 현상, 작용, 성질, 과정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과학과 대비되는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철학 ㄷㄷ!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 문단과 이어서 각각 과학과 철학의 구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개념의 대립구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셨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글도 짧고 내용이 비유적 표현인 것만 빼면 어렵지도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테지만, 역시나 지문을 대하는 태도를 익히기에 좋아서 한 번 가져와봤습니다.

철학자

- 사실-경험 관계 확정 -> 종합적 해석
 - 목적 비판, 조절(<->) 과학 : 관찰, 수단 고안)

9. ⑤

역시 두 개념의 대립구도를 잘 잡아주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요즘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단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키워드 찾기 연습하는 용도로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존 VS 현상이라는 대립구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현상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과학이겠죠. 철학은 종합적 이해, 가치 등을 찾는다고 했으니 현상 그 자체 이상의 것입니다.

①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②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철학은 종합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네요.

③ 과학은 현상, 작용 등의 사실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철학은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하여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 과학이 사실이라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3, 4문단에서 과학과 철학의 속성들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비교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봅시다. 마지막 문단 첫 부분에서 '철학자들은 사실적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찾는다고 했죠. 그럼 앞에서 과학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점과, 철학 VS 과학의 구도를 알고 있다면, 결국 사실적 기술은 앞에서 말한 과학의 속성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잘 캐치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자주하는 페

러프레이징과 비슷한 느낌이죠. 뿐만 아니라 3문단에서 과학은 현상, 작용 등에만 주목하고 이상적 가능성 및 가치 등은 관심 없다고 했다는 점을 통해 과학이 '사실'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근거인 부분을 확실히 캐치했는지만 알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모호 -> 확실' 이 사실만 딱 잡고 나머지 선지를 걸러보세요.

10. ④

㉠ 바로 뒤 문장에 바로 나와 있죠.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① 철학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는걸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니다.

② 지혜를 탐구한다고 했지 상식과 혼동한다고는 안했습니다.

③ 이걸 과학이죠.

⑤ 철학자들이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11. ⑤

철학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을 추구하고, 과학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을 연구하며, 일상생활은 연구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광맥은 불확실합니다. 광부는 이미 발견해놓은 광산길로 들어가서 채굴하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완성된 물품들만을 사용하죠. 광맥을 찾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나름의 탐구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탐구가 아닙니다.

② '철로를 따라'가 틀렸습니다. 철학은 불확실한 길을 찾아 나가야하는데, 철로는 이미 정해져있죠?

12. ③

앞에서 철학은 불확실한 영역을 탐구한다고 했고, 뒤에서 철학은 이상적이고 가치 이런걸 계속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을 연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헌문제 같네요(~~허용 가능합니다~~). 그래도 둘의 비교구도를 잡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니까 다시 풀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① 종교적 성찰은 만나왔어요.

② 철학 쓰스트라고 했는데 회의라뇨..?

④ ??????? 이상을 탐구하는데 자조적 독백은 헛소리네요.

⑤ 자아 탐구? 아니네요.

13. ①

㉠와 ㉡를 보고 바로 알기보다는 뒤에서 설명하는 과학의 속성까지 알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과학은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즉, 새싹에서 확실히 도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열매가 정답이겠네요. 이 역시 현재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해설에 꼼꼼히 신경쓰기 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14~18]

14. ②

㉠은 그냥 형편이 어려움을 드러낼 뿐,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① 원활한 부부 관계를 보여줍니다. 중구 영감의 다정한(?) 성격을 알 수 있네요.

③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바로 넘어가셔도 좋고, 명장처럼 고퀄리티의 물건들을 내어 놓지만 고퀄의 물건들을 만드는 영감의 성격이 깐깐하다는 부분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15. ④

의장이 뭘진 모르겠는데 앞부분에서 그가 만들어 낸 자개장이나 귀목장에 대해서 의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개장이나 귀목장을 몰라도 중구 영감이 소목장 일을 한다는 맥락과 '만들어 낸'에 주목해서 '의장'이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만든 물건이 견고하고, 귀물이고 값이 비싸다는 등을 통해 물건의 퀄리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겠네요.

①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고 그 물건이 예술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②, ⑤ 의장은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한 표현입니다.

③ 어떤 장식이 달렸는지 뭐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죠?

16. ②

뭐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에 대답은 안하고 탄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 이후에 다른 인물의 얼굴이 별개지고 오기가 발끈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중구 영감 성격이 지 맘에 안들면 안해준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기도 했구요.

17. ③

비싸게 팔고 해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주는 마당에 중구 영감이 자기 물건을 팔겠다고 흥정하는 장면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① 외가의 도움을 달갑잖게 여겼다고 합니다.

② ㉠에서 김 약국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 가능해요.

④ 처음에 소목일 배우러 간 게 가난해서라고 했습니다.

⑤ 역시나 소목일을 배우니까 그걸 배우러 찾아가는 장면도 허용 가능하겠네요.

18. ①

중구 영감과 정국주 마누라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국주 마누라가 해달라고 부탁한 걸 중구 영감이 거들떠도 안보고 거절한 적이 있다는 일화를 이야기할 뿐이네요. 둘이 그거 때문에 뭐 싸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② 한실댁은 겸상도 못했으니 남녀차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③ 대사 부분을 보면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네요.

④ 남들이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고 자기 소신대로 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부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⑤ 일반적으로 선비가 일을 하지는 않는데,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시나 충분히 허용 가능합니다.